

능력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제2대 담임목사 위임 및 승계예배

이동석 목사 원로 추대 · 양택식 목사 담임 승계



서울서지방회 능력교회는 지난 3월 22일 오후 4시 이동석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제2대 담임목사로 양택식 목사를 위임하는 승계예배를 거행했다. 지방회장 손항모 목사(강서교회)의 사회로 시작한 1부 예배는 김필석 목사(성현교회)의 기도와 윤효석 목사(성지교회)의 성경봉독(딤후 4:7-8)에 이어 전 총회장 김윤석 목사(죽은이웃교회 원로)의 '하나님 나 잘한 것 맞지요?'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원로 추대와 담임 위임의 의미를 설명하며, 위임받는 목회자의 바른 사역자세에 대해 전했다.

2부 원로목사 추대식은 양현갑총회 감찰장 윤상희 목사(화복교회)의 예식사와 지방회장 손항모 목사의 원로목사 소개 후 이동석 목사를 원로목사로 공포하였고, 추대패와 공로패(사진환 목사)를 증정하였다. 이어 송벽준 목사부

흥하는복일교회 원로)가 축사를 전했다. 교회 대표로 강희성 장로가 추대선물을 증정했다.

3부 담임목사 위임식은 치리목사 송기정 목사(참좋은교회)의 예식사와 지방회서기 김현기 목사(주님의교회)의 위임목사 소개 후 위임서약과 위임패가 진행됐다. 이어 지방회장 손항모 목사가 양택식 목사를 능력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공포했다.

4부 목회승계식에는 전 총회장단과 설립자 이동석 목사의 축사 후 양윤종 장로(당회서기)의 광고, 송벽준 목사(안성중앙교회 원로목사)의 축사로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쳤다.

서울서지방회주제기자 윤효석 목사



평안한교회, 창립 22년 만에 첫 장로 장립 장로 장립 및 권사 취임식 거행...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서울북지방회 평안한교회(차익성 목사)가 창립 22년 만에 처음으로 장로를 세우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평안한교회는 지난 3월 29일 오후 3시, 교회 예배당에서 장로 장립 및 권사 취임식을 거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날 예식은 예성의 불모지와도 같은 경기북부 지역에 세워진 평안한교회가 지난 22년 동안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복음 전파와 제자 양육의 결실을 맺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교회는 수많은 영혼을 섬기며 신앙공동체를 세워 왔고, 이날 마침내 장로를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1부 예배는 담임 차익성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남전도회가 특송으로 은혜를 더했다. 이어 지방회장 진영복 목사가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딤후 2:15)'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간증과 함께 전하며, 임직자들에게 사명과 책임의 무게를 깊이 일깨웠다. 2부 임직식에서

는 임직자들이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장로와 권사로 총칭되어 헌신할 것을 서약했으며, 지방회장을 역임한 목회자들의 인수를 통해 각각 장로와 권사, 명예장로와 명예권사로 세움을 받았다.

이어진 3부 축하식은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축하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으며, 모든 순서를 마친 참석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날 예식을 위해 노병호 지용혁 진영복 황대연 유희렬 선우담 김경연 황성환 김상렬 김명선 권순달 배상길 목사가 순서를 맡아 섬겼으며, 강명준 인수집사가 축가로 축복의 자리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다음은 임직자 명단.
 △장로장립: 호경석
 △권사임직: 이경숙 송은숙 황선희 김검지 김연애
 △명예장로추대: 이장길
 △명예권사추대: 신동직.
 서울북지방회주제기자 서계원 목사



"예수로 충분하다" 여섯 교회,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 되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 속한 여섯 교회가 함께 드린 '여섯 걸음 부활절 연합예배'가 은혜와 감동 속에 진행되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번 연합예배는 지난 4월 5일 오후 3시 30분, 신수동교회에서 드려졌으며, '예수로 충분하다'는 고백 아래 세대와 교회를 넘어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날 예배는 단순한 예배 형식을 넘어 축사와 고백, 감사와 영광, 그리고 파송으로 이어지는 찬양축제로 진행되었다. 어린이부터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해 예배를 풍성하게 채웠으며, 성도들은 한목소리로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현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특히 네 명의 담임목사가 직접 찬양을 인도하며 예배의 중심에 섰고,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어우러지며 예배의 열기를 더했다. 한 시간이 이어진 찬양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고, 현장은 축제를 방불케 하는 환호와 감격으로 가득 찼다. 성도들은 찬양 가운데 깊이 잠겨서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렸다. 또한 여섯 걸음 연합찬양대의 찬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깊이 경험하게 하며 예배의 감동을 더했다.

말씀을 전한 임시경 목사(신수동교회)는 고난주간 동안 여섯 교회가 함께 나누었던 '예수로 충분하다'는 주제를 다시 한번 선포하며, 복음 앞에서 하나 되는 교회의 본질을 강조했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출발한 교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은

참석한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번 연합예배는 교회 연합이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실제로 하나 되는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자리였다. 여섯 교회는 앞으로라도 말씀과 기도, 섬김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합하며 지역과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역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예배에서 모인 헌금은 작은 교회의 월세를 지원하는 등 어려운 교회를 돕는 사역에 사용될 예정이다.

여섯 걸음 소개

'여섯 걸음(6 Steps)'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여섯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며 나아갔던 장면에서 유래한다(삼하 6:13). 이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씩 수종과 예배로 나아가는 신앙의 걸음을 의미한다

이 정사를 따라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 속한 여섯 교회(개동교회, 거룩한씨사동교회, 부흥하는독일교회, 신수동교회, 예수소망교회, 창동교회)가 연합하여 사역하고 있다. 매년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고, 부활절에는 연합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또한 후각과 사역을 통해 작은 교회의 이웃을 섬기며 복음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다.

(여섯 걸음 제공)

평강교회, 44년 헌신의 바통을 잇다

유선호 목사 원로 추대 · 유다윗 제2대 담임목사 위임



서울중부지방회 평강교회는 지난 3월 29일(주일) 오후 4시에 유다윗 제2대 담임목사 위임 및 유선호 원로목사 추대식을 거행했다.

1부 예배는 지방회장 이규명 목사(성은교회)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지방회 부회장 이종화 목사(사랑교회)의 기도와 지방회서기 고명희 목사(벧엘교회)의 성경봉독, 송종삼 목사(나누리교회)의 헌금기도에 이어 지방회장 이규명 목사가 '하나님과 연합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2부 예식에서는 지방회장 이규명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지방회서기 고명희 목사가 은퇴하는 원로목사의 약력과 업적, 그리고 새롭게 위임받는 담임목사의 약력을 소개했다. 이후 지방회장이 위임받는 목사와 교인 대표를 세워 서약을 받고 공포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하 예식에서는 문정민 목사(전 총회장, 동산교회)와 이진우 목사(동아신학교 학장, 새소망교회)가 축사를, 양준기 목사(문래동교회)가 권면을, 김윤석 원로 목사(전 총회장, 죽은이웃교회)가 격려사를 전했다. 노태철 원로목사(전 총회장, 주님앞에제일교회)의 축사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날 원로로 추대된 유선호 목사는 1982년 평강교회를 창립한 이래 44년간 한결같은 목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왔다. 과거 자동차 공업 분야에서

금형과 치공구를 직접 구상하고 그려내던 기계 설계사 출신으로, 남다른 학구열을 통해 성경대 신학과를 거쳐 서울신대 신학박사 학위까지 취득하는 평생 학습의 분을 보였다. 특히 중고등부교육 선교회(T.E.M.)를 설립해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이끌며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크게 헌신했으며, 교단 내 주요 위원장직을 역임하고 18권의 저서를 남기는 등 교단 발전에 깊게 이바지했다.

새로운 비전을 안고 취임한 제2대 유다윗 담임목사는 공주대 사범대 역사교육과와 성결대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했다. 서안양교회를 시작으로 동산교회, 인천 복원교회, 문래동교회에서 부목사로 헌신하며 다양한 사역 경험을 쌓았다. 사범대 전공을 살린 탁월한 '가르침의 은사'와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찬양 인도의 달린트'를 두루 갖춘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육상 계주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바로, 바통을 이어받는 순간이다. 이날 평강교회 온 성도들은 지난 44년간 눈물과 기도로 세워진 든든한 터전 위에, 새롭게 세워진 유다윗 목사와 함께 은혜와 헌신의 바통을 든든히 이어받아 결승선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새로운 내일을 다짐했다.

서울중부지방회주제기자 고명희 목사

실로암선교회, 창립 14주년 감사예배 장학금 전달 및 양복 나눔 행사도 가졌다



부천지방회 실로암선교회(지연숙 목사)가 지난 31일(화) 낮 12시에 교회 창립 14주년 감사예배 및 장학금 전달과 양복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예배는 담임 지연숙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유영수 목사(새희망교회)의 기도와 유미애 목사(지성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총회장 홍사진 목사(주찬안교회)가 '좋은편을 택하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지연숙 목사의 해외 및 국내 사역을 나누는 선교보고가 있었다. 해외사역으로는 해외아동 일대일 후원으로 2012년 태국 아동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122명의 학생들이 후원자들과 일대일 후원을 연결하였고, 그중 65명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47명의 학생들과 고아원 아이들(40명)에게 교육비를 후원하고 있다. 해외 성전건축으로서 2025년까지 7개 교회를 건축하였으며 필리핀 팔라 밥반지역에 부천실로암반반교회를 건축하여 지난 3월에 헌당예배를 드렸다. 또한, 2023년 필리핀에 선교팀을 위한 선교관을 개관하여 필리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선

교회는 선교팀의 속속으로 사용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찬양제를 4회 개최하고 있으며 찬양으로 지역교회들의 단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 외 비전트립, 미용봉사, 의류나눔, 쌀나눔, 위선선교, 현지인사역자교육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사역으로는 실로암선교회의 창립 13주년 감사예배 때와 이번 14주년 감사예배 때 100여 명의 목회자들에게 양복을 한 벌씩 나누는 행사를 하였고, 장학금 후원으로서 성결대학교에 500만 원을, 필리핀 호렙성결신학대학교에 100만 원을, 인천성서신학원에 100만 원을 후원하였다. 나눔 행사로는 부활절, 어린이날, 어버이날, 수능일, 명절에 맞아 이웃에게 사랑의 선물을 나누었으며,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여성성경학교(서초·나눔·국내 9교회, 해외 2교회/700장)를 하였고, 후원자들이 후원한 물품화장품, 가방, 신발, 옷 등을 국내외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선교에 앞장서고 있어 부천지방의 모범이 되는 교회이다.

부천지방회주제기자 이상수 목사

고덕 아름다운교회, 이전감사예배 드려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뜻깊은 자리 돼



고덕 지역에 위치한 아름다운교회(박주덕 목사)가 교회 이전을 기념하며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번 이전감사예배는 지난 3월 21일(토)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됐다.

아름다운교회는 이번 이전을 통해 더욱 확장된 공간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역사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사역을 더욱 힘차게 이어갈 계획이다. 예배는 송탄감찰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남지방회장 한재환 목사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번 이전감사예배는 단순한 장소 이전을 넘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새로운 사명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아름다운교회 담임 박주덕 목사와 성도들은 앞으로도 복음 전파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며, 지역사회 속에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자리매김할 것을 다짐했다.

경기남지방회주제기자 박주덕 목사

구독후원금 납부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전국 교회에서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저희가 교단산하 교회와 장로님들께 발송해 드린 성결신문에 대하여 문서선교적인 차원에서 2025년도 구독후원금 44,000원을 부탁드리오니 국민은행 533301-01-168714(예금주: (주)성결신문사)로 송금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잡습니다.

성결신문 627호 6면 경기서전도지방회 기사내용 중 '경기서지방회'는 '경기서전도지방회'로 바로잡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다 (시 16:8)